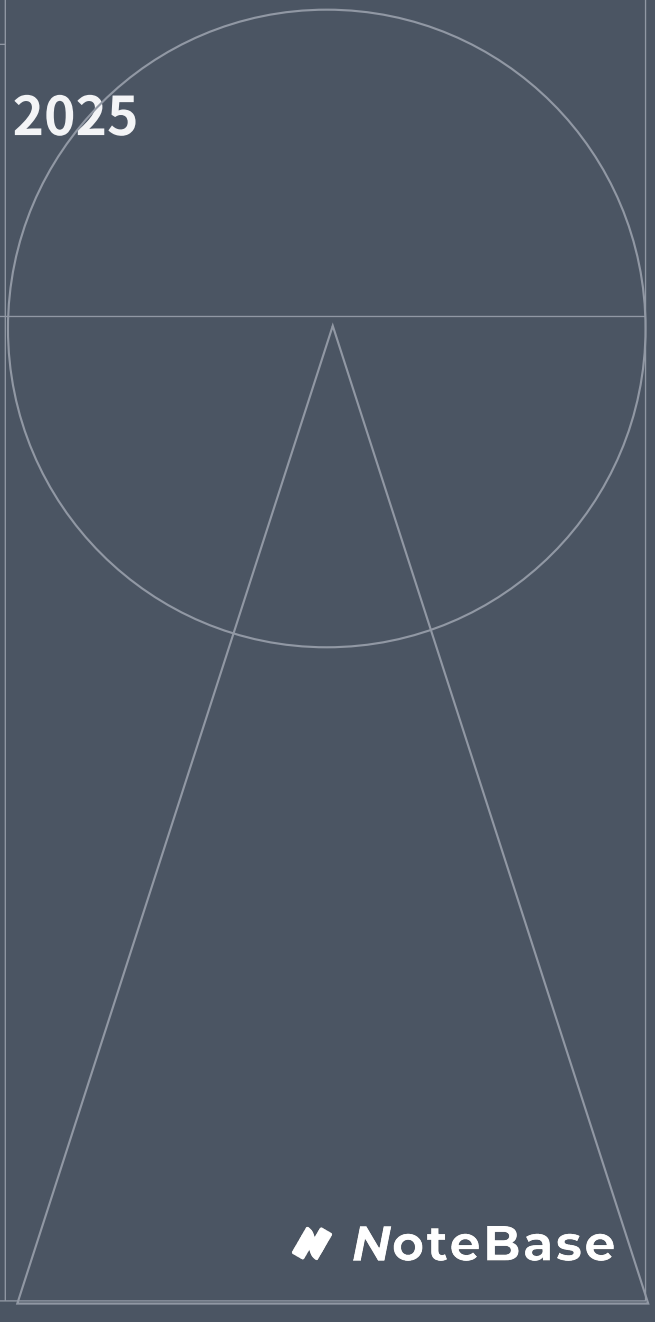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5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5

1. <보기>에서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어는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수의 성분을 요구하는데, 자릿수에 따라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등으로 나뉜다. 서술어의 자릿수가 모두 채워지지 않으면 문장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 눈이 한없이 내린다.
㉡ 경미가 입김을 분다.
㉢ 눈이 비로 변한다.
㉣ 영수가 어른이 되었다.

① ㉠: '내린다'는 자동사로서 한 자리 서술어
② ㉡: '분다'는 타동사로서 한 자리 서술어
③ ㉢: '변한다'는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
④ ㉣: '되었다'는 보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서술어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이다. 주어만 요구하면 한 자리 서술어이고, 주어와 목적어·보어·필수적 부사어 가운데 하나를 요구하면 두 자리 서술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의 '내린다'는 '눈이'라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동사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X — ㉡의 '분다'는 주어 '경미가'와 목적어 '입김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타동사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틀린 표현인 '한 자리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로 고쳐야 한다.
③ O — ㉢의 '변한다'는 주어 '눈이'와 필수적 부사어 '비로'를 요구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O — ㉣의 '되었다'는 주어 '영수가'와 보어 '어른이'를 요구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에서 동작의 주체만 보고 '분다'를 한 자리 서술어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무엇을 부는가'에 해당하는 목적어 '입김을'이 필수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어만 남겨 놓고 '누가/무엇이', '무엇을', '무엇이', '무엇으로'와 같은 질문을 차례로 던져 의미상 반드시 필요한 성분만 센다. 수식어처럼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은 자릿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내리다: 주어 1자리 / 불다: 주어+목적어 2자리 / 변하다: 주어+필수적 부사어 2자리 / 되다: 주어+보어 2자리이다.

NoteBase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여기가 우리 고향인 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
②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 데 큰 실수를 하셨다.
③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④ 많이 먹기는 먹는 데 살이 찌지는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존 명사 '데'와 연결 어미 '-ㄴ데/-는데'를 구별하여 띄어쓰기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 '데'는 '곳·경우·일'의 뜻을 나타내며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쓴다. 연결 어미 '-ㄴ데/-는데'는 앞 절의 내용을 뒤 절의 배경으로 제시하거나 대조하여 이어 주며 앞말에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고향인 데'의 '데'는 뒤의 '인심 좋고 경치 좋은' 내용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이므로 띄어 쓸 수 없다. 틀린 표현 '우리 고향인 데'는 '우리 고향인데'로 고친다.
② X — '아니신 데'의 '데'는 앞 절을 배경으로 하여 '큰 실수를 하셨다'와 이어 주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인다. 틀린 표현 '아니신 데'는 '아니신데'로 고친다.
③ O — '읽는 데'의 '데'는 책을 다 읽는 '일'에 삼 일이 걸렸다는 뜻의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관형어 '읽는'과 띄어 쓴 '읽는 데'가 옳다.
④ X — '먹는 데'의 '데'는 많이 먹는 사실과 살이 찌지 않는 사실을 대조하여 잇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틀린 표현 '먹는 데'는 '먹는데'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서 '데' 앞에 관형사형처럼 보이는 표현이 놓여 있어 무조건 띄어 쓰기 쉽다. 특히 ③의 '읽는 데'는 '읽는 일에'로 바꿀 수 있지만, ①·②·④는 앞 절과 뒤 절을 이어 주므로 '데'를 앞말에 붙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데'를 '곳·경우·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앞 절을 뒤 절의 배경으로 제시하거나 두 사실을 대조하여 이어 주면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곳·경우·일'의 '데'는 띄고, 문장을 잇는 '-ㄴ데/-는데'는 붙인다.

NoteBase

3. 어려운 표현을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관(→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적의(→예방) 조치를 취한 후 이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이미) 통보한 신종플루 대응 복무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④ 감염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어려운 한자어나 관용적인 공공언어 표현을 문맥과 원래 뜻에 맞는 쉬운 말로 고쳤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쉬운 말로 고칠 때에는 단어만 익숙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표현의 뜻과 문장 속 기능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 '소관'은 '담당', '기(旣)'는 '이미', '철저를 기하다'는 '철저히 하다'로 바꿀 수 있다. 반면 '적의(適宜)'는 '형편이나 상황에 알맞게'라는 뜻이므로 '적절한'이나 '알맞은'으로 풀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관 부서'는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하는 부서를 뜻하므로 '담당 부서'로 바꾸면 뜻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② X — '적의'를 '예방'으로 바꾼 부분이 잘못되었다. '적의'는 '상황에 알맞은'이라는 뜻이므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알맞은 조치를 취한 후'로 고쳐야 한다.
③ O — '기(旣)'는 '이미'라는 뜻이므로 '기 통보한'을 '이미 통보한'으로 바꾼 것은 적절하다.
④ O — '철저를 기하다'는 어떤 일을 빈틈없이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감염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로 풀어 쓴 것은 원래 뜻을 살린 쉬운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이 의미상 비슷해 보여 자연스럽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바꾸어야 할 말은 '적의'이며, 그 뜻은 '예방'이 아니라 '적절한·알맞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괄호 앞의 어려운 표현을 먼저 자기 말로 뜻풀이한 뒤, 화살표 뒤의 쉬운 말이 그 뜻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문장 전체가 자연스러워 보여도 원래 단어의 뜻이 달라졌다면 적절한 순화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소관은 담당, 기(旣)는 이미, 철저를 기하다는 철저히 하다, 적의(適宜)는 적절한·알맞은이다.

NoteBase

4. 밑줄 친 부분의 높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모자를 보여 <u>드리지요</u>.
② 가서 어머니를 <u>모시고</u> 오너라.
③ 궁금하시면 제게 <u>여쭈어보세요</u>.
④ 오랜만에 <u>뵙게</u> 되어 반갑습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뵙다'와 같은 객체 높임 특수 어휘가 문장 속 인물 관계에 맞게 쓰였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다. '드리다'는 '주다', '모시다'는 '데리다', '여쭙다'는 '묻다', '뵙다'는 '보다'의 객체 높임 특수 어휘이다. 따라서 행동의 주체보다 높임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판단 기준은 O가 높임 표현의 적절한 사용, X가 부적절한 사용이다.
① O — '보여 드리다'는 모자를 보여 주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다. 말하는 이가 높여야 할 상대에게 모자를 보여 주는 상황이므로 적절하다.
② O — '모시다'는 '데리다'의 객체 높임 표현이다. 행동의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므로 적절하다.
③ X — '여쭙다'는 묻는 주체를 낮추고 질문을 받는 대상을 높이는 말이다. 이 문장에서는 높임을 받는 상대방이 말하는 이인 '제게' 묻는 구조이므로, 상대방을 오히려 낮추고 말하는 이를 높이는 셈이 되어 부적절하다. 틀린 표현 '제게 여쭈어보세요'는 '제게 물어보세요'로 고쳐야 한다.
④ O — '뵙다'는 '보다'의 객체 높임 표현이다. 말하는 이가 높여야 할 상대방을 만난 상황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상대 높임 종결 표현 '-세요'가 있어 문장 전체가 공손해 보인다. 그러나 밑줄의 '여쭙다'는 질문을 받는 대상인 '저'를 높이는 말이므로 높임의 방향이 뒤바뀐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수 높임 어휘가 나오면 먼저 행동의 주체와 대상을 나눈다. 그다음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가, 누구를 모시는가, 누구에게 여쭙는가, 누구를 뵙는가'를 확인하여 높임을 받는 대상이 실제로 높여야 할 인물인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드리다·모시다·여쭙다·뵙다는 모두 행동의 대상을 높인다. '제게'는 말하는 이를 가리키므로 상대방에게 '제게 여쭈세요'라고 하지 않고 '제게 물어보세요'라고 한다.

NoteBase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동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동이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동사나 형용사에 사동의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붙어서 이뤄진 타동사이다.

① 앞 마당에 눈들이 잔뜩 <u>쌓여</u> 갔다.
② 그 고기는 충분히 <u>익혀</u> 먹어야 한다.
③ 결국에 그 아이를 <u>울리고</u> 말았다.
④ 더 이상 나사를 <u>돌리지</u> 말아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사와 피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표현이다. 동사나 형용사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의 사동 접미사가 붙어 사동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피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받는 표현이다.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는 형태가 겹칠 수 있으므로 문장에서 '시키는 뜻'인지 '당하는 뜻'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눈들이 잔뜩 쌓여 갔다'의 '쌓여'는 '쌓이다'의 활용형이다. 여기의 '-이-'는 눈이 쌓는 동작을 하게 한다는 사동의 뜻이 아니라 눈이 쌓이는 상태가 된다는 피동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동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틀린 판단을 바로잡으면 '쌓이다'는 '쌓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사동 예문으로 고치면 '아이들이 앞마당에 눈사람을 세웠다'처럼 사동 접미사 '-우-'가 붙은 '세우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O — '익혀'의 기본형 '익히다'는 '익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은 말이다. 고기를 익게 한 뒤 먹는다는 뜻이므로 사동에 해당한다.
③ O — '울리고'의 기본형 '울리다'는 '울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은 말이다. 그 아이가 울도록 만들었다는 뜻이므로 사동에 해당한다.
④ O — '돌리지'의 기본형 '돌리다'는 '돌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은 말이다. 나사가 돌도록 한다는 뜻이므로 사동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쌓이다'에도 제시문에 나온 '-이-'가 보이므로 사동사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접미사의 모양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눈들이'가 남에게 쌓는 동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작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피동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미사를 찾은 뒤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하게 하면 사동, 주어가 동작이나 작용을 받으면 피동으로 판단한다. 같은 '-이-, -히-, -리-, -기-'가 쓰여도 문장의 의미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시키면 사동, 당하면 피동이며, 접미사의 모양보다 문장의 의미가 우선이다.

NoteBase

6. 겹받침의 발음이 옳은 것은?
① 맑다 [막따] ② 읊고 [을꼬]
③ 밟지 [발:찌] ④ 핥다 [핟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겹받침이 자음 앞에서 어떤 대표음으로 발음되는지와 그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겹받침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두 자음을 모두 소리 내지 않고 정해진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한다. 이때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 ㄷ, ㅈ 등은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다.
ㄺ은 자음 앞에서 보통 ㄱ으로 발음하므로 '맑다'는 [막따]가 된다. ㅶ은 ㅂ으로 발음하고, '밟-'의 ㄽ은 자음 앞에서 예외적으로 ㅂ으로 발음하며, ㅦ은 ㄹ로 발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맑다'의 겹받침 ㄺ은 ㄷ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고, 뒤의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므로 [막따]가 맞다.
② X — 틀린 부분은 ㅶ을 ㄹ로 발음한 [을꼬]이다. ㅶ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되고 뒤의 ㄱ이 ㄲ으로 바뀌므로, 올바른 발음은 [읍꼬]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밟-'의 ㄽ을 ㄹ로 발음한 [발:찌]이다. '밟-'은 자음 앞에서 예외적으로 ㅂ으로 발음되고 뒤의 ㅈ이 ㅉ으로 바뀌므로, 올바른 발음은 [밥:찌]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모음 ㅜ를 ㅏ로 바꾼 [할따]이다. ㅦ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고 뒤의 ㄷ이 ㄸ으로 바뀌지만 본래 모음 ㅜ는 유지되므로, 올바른 발음은 [훌따]이다.

오답 포인트

겹받침의 두 자음 중 눈에 익은 자음을 임의로 골라 발음하거나, 된소리화만 확인하고 앞 음절의 받침과 모음을 놓치기 쉽다. 특히 ③의 '밟-'은 일반적인 ㄽ과 달리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하는 예외이고, ④는 받침뿐 아니라 모음 ㅜ가 유지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겹받침이 놓인 환경이 자음 앞인지 확인한 뒤, 그 겹받침의 대표음을 정한다. 다음으로 뒤 자음의 된소리화를 적용하고, 마지막에 원래 모음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맑다 [막따], 읊고 [읍꼬], 밟지 [밥:찌], 훑다 [훌따]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7. 다음 시조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사자성어는?

> 산슈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ᄒᆞ니
> 그 몰론 놈들은 웃는다 ᄒᆞ다마는
> 어리고 햐암의 뜻의ᄂᆞ 내분인가 ᄒᆞ노라
>
> 보리밥 풋ᄂᆞ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 바횟긋 믉ᄀᆞ의 슬ᄏᆞ지 노니노라
> 그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롤줄이 이시랴
>
> – 윤선도, 「만흥(漫興)」 –

① 안분지족(安分知足)
② 박학다식(博學多識)
③ 욕속부달(欲速不達)
④ 강풍명월(江風明月)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적 화자가 가난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분수를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태도를 사자성어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분지족(安分知足)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현재의 처지에 만족한다는 뜻이다. 시적 화자는 보리밥과 풋나물을 먹고 바위 끝 물가에서 노닐면서도 다른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므로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안분지족(安分知足)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만족한다는 뜻이다. '내 분인가 하노라'와 '부럴 줄이 이시랴'가 이 의미를 직접 드러낸다.
② X — 박학다식(博學多識)은 널리 배우고 아는 것이 많다는 뜻으로, 학식의 많고 적음에 관한 표현이다. 틀린 대응은 '박학다식'이며, 올바르게는 '안분지족'이다.
③ X — 욕속부달(欲速不達)은 일을 빨리 이루려 하면 도리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성급함을 경계하는 표현이다. 틀린 대응은 '욕속부달'이며, 올바르게는 '안분지족'이다.
④ X — 강풍명월(江風明月)은 강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자연 풍광을 가리킨다. 작품에 자연 속 생활이 나타나지만 중심 주제는 풍경 자체가 아니라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태도이다. 틀린 대응은 '강풍명월'이며, 올바르게는 '안분지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바위와 물가 같은 자연 소재만 보고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사자성어는 배경 소재보다 화자의 태도와 연결해야 하며, 이 작품의 결정적 표현은 '내 분'과 '부럴 줄이 이시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조의 반복되는 태도와 마지막 결론을 먼저 확인한다. '분수에 맞게 삶', '현재 생활에 만족함', '남을 부러워하지 않음'이 함께 나타나면 안분지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안분지족은 '내 분수를 알고 만족함'이다.

NoteBase

8. 다음에서 설명하는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9품사는 각 부류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단어 가운데는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 한다.

①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간다. /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다.
② 그 애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③ 뛰는 친구와 걷는 친구 모두 제자리에 멈췄다. / 저 친구들은 뛰었고, 이 친구들은 걸었다.
④ 철수가 얻은 만큼이 얼마이고 영수가 잃은 만큼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 오늘 우리는 그 팀들이 할 만큼만 하고, 내일은 저 팀들이 할 만큼만 하면 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같은 형태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품사로 쓰이는 '품사의 통용'을 활용형이나 조사 결합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품사의 통용: 형태가 같은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 둘 이상의 품사 기능을 하는 현상이다.
수사와 관형사의 구별: 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며 홀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고,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민다.
활용과 조사 결합: 용언의 어미가 달라지거나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 것은 단어의 품사가 바뀐 것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푸른’과 ‘푸르고’는 모두 형용사 ‘푸르다’의 활용형이다. ‘푸른’에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푸르고’에는 연결 어미 ‘-고’가 붙었을 뿐 품사는 형용사로 같다. 틀린 판단은 어미가 달라진 것을 품사의 통용으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형용사의 활용 예이다.

② O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의 ‘열’과 ‘백’은 조사를 취해 문장 성분으로 쓰인 수사이다.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의 ‘열’과 ‘백’은 뒤의 명사 ‘사람’, ‘말’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같은 형태가 수사와 관형사로 쓰였으므로 품사의 통용에 해당한다.

③ X
‘뛰는·걷는’과 ‘뛰었고·걸었다’는 모두 동사 ‘뛰다·걷다’의 활용형이다. 앞 문장에서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명사를 꾸미고, 뒤 문장에서는 서술어로 쓰였지만 품사는 모두 동사이다. 틀린 판단은 문장 속 기능의 차이를 품사 변화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동사의 활용 예이다.

④ X
두 문장의 ‘만큼’은 모두 앞말의 내용이나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만큼이’의 ‘이’와 ‘만큼만’의 ‘만’은 ‘만큼’ 뒤에 붙은 조사이므로 ‘만큼’의 품사가 달라지지 않는다. 틀린 판단은 뒤에 붙은 조사의 차이를 품사의 통용으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의존 명사에 서로 다른 조사가 결합한 예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관형어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관형사라고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형용사·동사는 여전히 용언이다. ④도 조사 ‘이’와 ‘만’의 차이일 뿐, 의존 명사 ‘만큼’의 품사 변화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의 기본형과 결합 요소를 먼저 확인한다. 어미만 달라졌으면 용언의 활용이고, 조사만 달라졌으면 체언의 조사 결합이다. 같은 형태가 어떤 문장에서는 홀로 수량을 나타내고 다른 문장에서는 뒤의 체언을 꾸미는 것처럼 실제 품사 기능이 달라질 때 품사의 통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열·백’이 홀로 쓰이면 수사, 명사 앞에서 꾸미면 관형사이다. 어미 변화는 활용, 조사 결합은 품사 통용이 아니다.

NoteBase

9.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
>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붐비다
>
>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써는 소리에 붐비다
>
>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
>
> – 박용래, 「저녁 눈」 –

① 중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② 토속적 소재를 활용하여 향토색을 드러내고 있다.
③ 유사 어구의 강조와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④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에 쓰인 반복 표현, 소재, 어조의 특징을 실제 시어와 대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의적 표현은 하나의 말이 둘 이상의 의미를 드러내어 시의 의미를 넓히는 표현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된다. 영탄적 어조는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표현 등으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어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붐비다’는 눈발이 한곳에 많이 모여드는 모습과 사람들이 북적이는 듯한 느낌을 함께 떠올리게 하여 시적 의미를 확장한다.
② O — ‘말집’, ‘호롱불’, ‘조랑말’, ‘여물’은 농촌 생활과 관련된 토속적 소재로, 겨울 저녁의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③ X —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 붐비다’라는 유사한 어구의 반복은 대상을 강조하지만, 감탄사나 감탄형 표현이 없어 영탄적 어조라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눈 내리는 풍경을 담담하게 형상화하고 있다’이다.
④ O — 각 연에서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 장소·대상 + 붐비다’라는 동일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어 규칙적인 운율을 형성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유사 어구의 반복’이라는 앞부분이 맞기 때문에 전체가 맞는 설명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반복을 통한 강조와 영탄적 어조는 별개의 개념이며, 이 시에는 감탄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합 진술은 앞뒤를 나누어 각각 확인한다. 반복되는 문장 구조는 강조와 운율의 근거가 되지만, 영탄적 어조는 감탄사·감탄형 종결 표현처럼 감정이 강하게 표출된 언어적 근거가 있어야 성립한다.

암기 포인트

반복은 강조·운율, 영탄은 감탄 표현이다. 반복된다고 곧 영탄적 어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10. 밑줄 친 부분 중 사이시옷 표기가 옳은 것은?
① 햇님이 방긋 웃습니다.
② 윗문장에서 잘못 쓰인 어휘를 고르시오.
③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④ 반대하는 사람은 가윗표를 해주세요.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이시옷은 합성어인지 먼저 확인한 뒤, 뒷말에서 된소리나 'ㄴ' 소리가 덧나는지를 살펴 표기한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 가운데 일정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말에 적는다.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나 하나의 단어가 아닌 구에는 적지 않는다. 또한 뒷말이 'ㅍ'과 같은 거센소리로 시작하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햇님'의 '-님'은 접미사이므로 이 말은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이다. 틀린 표현 '햇님'은 '해님'으로 고친다.
② X — '위'가 뒤의 '문장'을 꾸미는 구성이므로 '위 문장'은 하나의 합성어가 아니다. 틀린 표현 '윗문장'은 '위 문장'으로 고친다.
③ O — '아래'와 '입술'이 결합한 합성어에서 'ㄴ' 소리가 덧나 [아랜닙쑬]로 발음되므로 '아랫입술'로 적는다.
④ X — '가위표'는 뒷말이 거센소리 'ㅍ'으로 시작하여 사잇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가윗표'는 '가위표'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윗입술'처럼 '윗-'이 들어가는 단어를 떠올려 ②의 '윗문장'도 한 단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②는 '위 문장'이라는 구이고, ①은 접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요소가 결합한 하나의 합성어인지 확인한다. 파생어나 구라면 사이시옷을 제외하고, 합성어라면 뒷말의 된소리 또는 'ㄴ' 소리 첨가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해님은 파생어, 위 문장은 구, 아랫입술은 합성어, 가위표는 거센소리 앞 표기이다.

NoteBase

11. 다음 공문서의 밑줄 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는 해마다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취업 알선, 구직자의 채용 기회, 일자리 기업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취업 박람회 개최 시 지역 기업 홍보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① 귀사 → 귀 사
② 구인·구직자간 → 구인·구직자 간
③ 구직자의 채용 기회 → 구직자의 취업 기회
④ 거버넌스 → 협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문서의 표현을 고칠 때 단어의 띄어쓰기, 문맥에 맞는 어휘, 쉬운 우리말 사용을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귀사'는 상대편 회사를 높여 이르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간'이 일부 명사 뒤에서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앞말과 띄어 쓰며, 구직자에게는 '채용 기회'보다 '취업 기회'가 의미상 알맞다. 외래어 '거버넌스'는 문맥에 따라 쉬운 우리말인 '협치'로 다듬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귀사'는 상대편 회사를 높여 이르는 명사이므로 '귀 사'로 띄어 쓰면 안 된다. 틀린 수정은 '귀사 → 귀 사'이며, 올바르게는 원문처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으로 붙여 쓴다.
② O — '구인·구직자'와 '간'의 관계이므로 '구인·구직자 간'으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 사람을 뽑는 주체가 얻는 것은 '채용 기회'이고,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가 얻는 것은 '취업 기회'이다. 따라서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구직자의 취업 기회'로 고친 것이 적절하다.
④ O — '거버넌스'를 문맥에 맞는 쉬운 우리말 '협치'로 바꾼 것이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귀사'를 '귀+사'처럼 각각의 말로 보고 띄어 쓰기 쉽다. 그러나 '귀사' 자체가 굳어진 한 단어이므로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③에서는 '채용'과 '취업'의 주체를 바꾸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정 전후의 띄어쓰기가 사전에 오른 한 단어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서술 대상이 행동의 주체와 맞는지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외래어를 문맥에 맞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지 살핀다.

암기 포인트

귀사는 붙이고, 관계를 뜻하는 '간'은 띄우며, 구직자는 취업하고 기업은 채용한다.

NoteBase

12.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쓴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누군가 했더니 철수예요.
㉡ 빨간색 글자의 뜻이 뭐에요?
㉢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에요.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받침의 유무에 따라 '이에요'와 '예요'를 구별하고, '아니다'의 활용형 '아니에요'를 바르게 쓰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에요/예요'는 명사 뒤에 붙어 서술의 뜻을 나타낸다.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를, 받침이 없으면 '예요'를 쓴다. 따라서 받침이 없는 '철수', '뭐', '거' 뒤에는 각각 '철수예요', '뭐예요', '거예요'가 온다. 다만 '아니다'는 '아니에요'로 활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철수예요'는 받침 없는 '철수' 뒤에 '예요'를 붙였고, ㄷ의 '아니에요'도 '아니다'의 바른 활용형이다. 따라서 바르게 쓴 ㄱ, ㄷ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② X — ㄴ의 '뭐에요'와 ㄹ의 '거에요'가 모두 잘못되었다. 받침 없는 말 뒤에는 '예요'를 쓰므로 각각 '뭐예요', '거예요'로 고쳐야 하며, 바르게 쓴 조합은 ㄱ, ㄷ이다.
③ X — ㄱ의 '철수예요'는 맞지만 ㄴ의 '뭐에요'가 틀렸다. '뭐에요'는 '뭐예요'로 고쳐야 하며, 바르게 쓴 조합은 ㄱ, ㄷ이다.
④ X — ㄷ의 '아니에요'는 맞지만 ㄹ의 '거에요'가 틀렸다. '거에요'는 '거예요'로 고쳐야 하며, 바르게 쓴 조합은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아니에요'의 '에요'를 보고 모든 말 뒤에 '에요'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뭐'와 '거'는 받침이 없으므로 '뭐예요', '거예요'가 맞고, '아니에요'는 '아니다'의 활용형으로 따로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명사 뒤의 표현은 먼저 앞말의 받침을 확인한다.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받침이 없으면 ‘예요’를 선택한다. ‘아니다’가 활용된 말은 ‘아니에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받침 있으면 ‘이에요’, 받침 없으면 ‘예요’, ‘아니다’는 ‘아니에요’이다.

NoteBase

1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빤히 들여다 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 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을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자리를 비킬 모양이다.

① 서술의 초점이 소년에 맞춰져 있다.
② 장황한 문체에 의한 장면 묘사가 두드러진다.
③ 서술의 시점이 소녀의 입장에 고정되어 있다.
④ 작가의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인물 밖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장면만 전달하는지를 바탕으로 서술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장면을 관찰하듯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소녀의 행동을 바깥에서 묘사하고, 소년이 소녀를 아는지에 대해서도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을 단정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서술의 초점이 소년에 맞춰져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글은 개울가에 나온 소녀의 행동과 모습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올바르게는 서술의 초점이 소녀에게 맞춰져 있다고 해야 한다.

② X — '장황한 문체'라는 표현이 틀렸다. 소녀가 세수하고 물을 움켜 내며 물장난하는 행동을 간결하게 이어서 묘사하므로, 올바르게는 간결한 문체로 장면이 제시된다고 해야 한다.

③ X — '서술의 시점이 소녀의 입장에 고정되어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소녀가 직접 말하거나 소녀의 내면에서 사건을 서술하지 않으므로, 올바르게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소녀의 행동을 관찰하는 시점이라고 해야 한다.

④ O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소녀의 행동과 외양을 관찰하듯 서술하고 있다. 특히 소년이 소녀를 아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표현하여 인물의 내면을 알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작가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글의 중심인물이 소녀라는 사실과 서술 시점이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판단을 혼동하기 쉽다. 소녀의 행동이 많이 제시되어도 소녀의 생각과 감정이 직접 드러나지 않으면 소녀의 내부 시점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인지 작품 밖 존재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아는지 살핀다. 작품 밖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만 전달하고 내면을 단정하지 않으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밖에서 행동만 관찰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 인물의 내면까지 모두 알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NoteBase

14.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 중 표현 방식이 다른 한 가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을 '직접 화행'이라고 한다.
> 예) "창문을 열어주렴."
> - 화자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을 '간접 화행'이라고 한다.
> 예) "너무 덥지 않니?"(창문이 닫혀 있어서 더울 때)

① 아내: ㉠형광등을 새로 사왔어.
남편: 응, 내가 갈아줄게.

② 아들: ㉡밥 늦게까지 공부를 했더니 배가 많이 고프네요.
어머니: 밥 차려놨으니 얼른 먹어라.

③ 친구 A: ㉢여기서 너희 집은 어떻게 가지?
친구 B: 300번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

④ 학생 A: ㉣촉이 다 부러져 쓸 연필이 없네.
학생 B: 자, 내 연필을 빌려 줄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의 겉형식과 화자의 실제 의도가 일치하는 직접 화행과, 겉형식을 빌려 다른 의도를 드러내는 간접 화행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 화행: 문장의 겉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직접 일치하는 화행이다. 질문하는 형식으로 실제 정보를 묻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간접 화행: 문장의 겉형식과 화자의 실제 의도가 일치하지 않아, 듣는 사람이 맥락을 바탕으로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화행이다. 평서문으로 어떤 사실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형광등을 새로 사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평서문이지만, 실제 의도는 남편에게 형광등을 갈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 화행이 아니라 간접 화행이다. 올바르게는 '평서문을 통해 형광등을 갈아 달라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분류한다.
② X — 배가 고프다는 상태를 말하는 평서문이지만, 실제 의도는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 화행이 아니라 간접 화행이다. 올바르게는 '배가 고프다는 진술을 통해 식사를 달라는 요청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분류한다.
③ O — '여기서 너희 집은 어떻게 가지?'는 의문문으로 길을 묻고 있으며, 실제 의도도 친구의 집에 가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다. 질문의 겉형식과 정보 요구의 의도가 일치하므로 직접 화행이다. 나머지 세 선지와 표현 방식이 다르다.
④ X — 연필이 모두 부러져 쓸 연필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평서문이지만, 실제 의도는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 화행이 아니라 간접 화행이다. 올바르게는 '연필이 없다는 진술을 통해 연필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분류한다.

오답 포인트

③도 의문문이므로 겉으로는 돌려 말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묻는 형식과 길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그대로 일치한다. 반면 ①·②·④는 모두 평서문이면서 실제로는 상대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장의 겉형식이 진술·질문·명령 중 무엇인지 확인한 뒤, 대화 맥락에서 화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다. 두 가지가 일치하면 직접 화행, 진술 등의 형식을 빌려 요청·명령 등 다른 의도를 전달하면 간접 화행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겉형식과 실제 의도가 같으면 직접 화행, 다르면 간접 화행이다.

NoteBase

15. 다음 로마자 표기법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로마자'란 '라틴문자'라고도 하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문자로서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언어를 기록하는 표준 문자이며 유럽인이 정착한 곳과 그 밖의 나라에서도 쓰인다.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3)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① 갑천 → Gapcheon
② 살풀이 → salpuri
③ 고비 → gobi
④ 강릉 → Gangreung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마자 표기법의 자음 표기 원칙과 음운 변화 반영 원칙을 실제 지명과 낱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 각각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각각 'k, t, p'로 적는다.
핵심 사실 2: 'ㄹ'은 모음 앞에서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l'로 적으며, 'ㄹㄹ'은 'll'로 적는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 말은 글자 모양이 아니라 변화한 발음 결과에 따라 적는다.

핵심 개념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표기 원칙이다. 각 자음의 위치에 따른 표기와 실제 발음에서 일어난 음운 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적용 기준

먼저 해당 자음이 모음 앞인지, 자음 앞이나 어말인지 확인한다. 이어 실제 발음에서 비음화와 같은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변화가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 적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갑천’의 첫 ‘ㄱ’은 모음 앞이므로 ‘g’, 받침 ‘ㅂ’은 자음 ‘ㅊ’ 앞이므로 ‘p’로 적어 ‘Gapcheon’이 적절하다.

② O — ‘살풀이’에서 ‘살’의 받침 ‘ㄹ’은 자음 ‘ㅍ’ 앞이므로 ‘l’, ‘풀이’의 ‘ㄹ’은 모음 앞이므로 ‘r’로 적어 ‘salpuri’가 적절하다.

③ O — ‘고비’의 ‘ㄱ’과 ‘ㅂ’은 모두 모음 앞에 있으므로 각각 ‘g’와 ‘b’로 적어 ‘gobi’가 적절하다.

④ X — ‘강릉’은 음운 변화에 따라 [강능]으로 발음되므로 ‘ㄹ’을 ‘r’로 옮긴 ‘Gangreung’은 적절하지 않다. 틀린 표현 ‘Gangreung’은 ‘Gangneung’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릉’을 글자 그대로 보고 ‘ㄹ’을 모음 앞의 ‘r’로 적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3)에 따라 음운 변화가 일어난 말은 실제 발음 [강능]을 반영해야 하므로 ‘n’으로 적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자음의 앞뒤 환경을 확인한 뒤, 실제 발음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음운 변화가 있으면 철자보다 변화한 발음 결과를 우선하여 로마자로 옮긴다.

암기 포인트

로마자 표기는 ‘자음의 위치 확인 → 실제 발음의 음운 변화 확인’의 순서로 판단하며, ‘강릉[강능] → Gangneung’으로 기억한다.

NoteBase

16. 우리말 어법에 맞는 것은?
① 가을 들어서는 주문이 밀려 생산 라인이 24시간 가동되어졌다.
② 작은형, 아버지가 주차장으로 빨리 오시래.
③ 선생님께서는 연구실에 책이 많이 계신다.
④ 생각해 보니, 지금 대구도 정말 덥겠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피동 표현, 높임 표현, 선어말 어미의 쓰임이 문장 성분과 의미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대상의 행위나 작용을 입는 뜻을 나타내며, 이미 피동의 뜻을 가진 말에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겹치지 않는다.
높임 표현: 높임의 대상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에 따라 조사와 서술어를 알맞게 사용한다. '계시다'는 높여야 할 사람이 주어일 때 쓰는 '있다'의 주체 높임말이다.
선어말 어미 '-겠-': 미래뿐 아니라 말하는 이의 추측이나 판단을 나타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동되다'에 이미 피동의 뜻이 있으므로 '-어지다'를 다시 붙인 '가동되어졌다'는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생산 라인이 24시간 가동되었다'로 고친다.
② X — '오시래'의 '-시-'는 오는 사람인 작은형을 높이는 꼴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명령을 한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 필요하다. '작은형, 아버지께서 주차장으로 빨리 오라셔.'로 고친다. '오라셔'는 '오라고 하셔'가 줄어든 말이다.
③ X — '계시다'의 문법적 주어는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 아니라 사물인 '책'이므로 주체 높임을 쓸 수 없다. '선생님께서는 연구실에 책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또는 '선생님의 연구실에는 책이 많이 있다.'로 고친다.
④ O — '생각해 보니'라는 판단의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대구의 날씨를 추측하고 있으므로 '덥겠다'의 '-겠-'이 알맞게 쓰였다.

오답 포인트

④의 '-겠-'을 미래 시제로만 보면 현재를 나타내는 '지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겠-'은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도 나타낸다. 또한 ①은 피동 형태가 길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되다'와 '-어지다'가 겹친 이중 피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피동 표현은 피동 요소가 두 번 겹쳤는지 확인하고, 높임 표현은 실제로 높임을 받는 문장 성분을 찾는다. '-겠-'은 미래인지 추측인지 앞뒤 문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동되어졌다'는 이중 피동, '계시다'의 주어는 사람, '-겠-'은 미래뿐 아니라 추측도 나타낸다.

NoteBase

17.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내가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으므로 가끔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였다. 그런데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아 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
>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종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많은 재산을 가진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
>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① 힘과 권세의 허무함
② 소유의 진정한 의미
③ 겸손과 지혜의 소중함
④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의 반복되는 핵심 생각과 마지막 일화가 가리키는 중심 화제를 종합하여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글의 주제는 글쓴이가 글 전체를 통해 전달하려는 중심 생각이다. 이 글은 빌린 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진 경험에서 출발하여, 사람의 힘·권세·재산도 남에게서 빌린 것처럼 언젠가 되돌아갈 수 있다고 확장한다. 따라서 오래 빌린 것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 곧 소유의 진정한 의미가 중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힘과 권세의 허무함'은 임금과 신하의 사례에 일부 드러나지만, 힘과 권세뿐 아니라 재산과 말까지 모두 '빌린 것'으로 묶는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힘과 권세의 허무함'이며, 올바르게는 '빌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소유의 진정한 의미'이다.
② O — 글쓴이는 말, 지위, 권세, 재산이 모두 남에게서 빌린 것이며 되돌아가면 소유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마지막의 '오랫동안 빌려 쓰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라는 말도 이를 집약하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③ X — 글은 겸손한 태도나 지혜의 가치를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겸손과 지혜의 소중함'이며, 올바르게는 '자신이 가진 것을 영원한 자기 소유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④ X — 근심은 자기 말과 빌린 말을 탈 때의 태도 차이를 보여 주는 도입 소재일 뿐, 글은 근심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이며, 올바르게는 '빌린 것과 참된 소유를 성찰하는 태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본문 중 '임금과 신하'의 사례만 잡아 만든 선지이고, ④는 첫 문단의 '근심'이라는 낱말만 잡아 만든 선지이다. 주제는 특정 사례나 소재 하나가 아니라 말·권세·재산과 마지막 일화를 모두 설명하는 생각이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반복되는 말인 '빌리다'와 '자기 소유'를 먼저 찾고, 도입의 말 이야기에서 지위·권세·재산의 이야기로 확장된 논리를 확인한다. 이어 마지막 일화가 요약하는 생각과 일치하면서 글 전체를 가장 넓게 포괄하는 선지를 주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제는 부분 소재가 아니라 반복어, 내용의 확장, 마지막 일화를 모두 꿰는 중심 생각이다. 이 글에서는 '빌린 것'과 '자기 소유'의 대비가 핵심이다.

NoteBase

18. (가) ~ (다)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문자는 통치 수단이었다. 문자를 만드는 행위는 새로운 국가 질서의 창조를 뜻한다. 문자는 황제의 명령을 담은 매개체이며, 문자를 통해 황제의 명령이 변방까지 전해진다. 말하자면 문서행정 시스템이, 시황제의 천하통일 이후로 국가 통치의 기본이었다. 문자 기반 행정 체계가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퍼져서, 동아시아 문자문화사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
> (가) 한자의 상형은 뜻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山'의 뜻이 산의 형상인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이러한 뜻의 세계와 관련이 없다. 'ㄱ'은 그 소리의 실체가 혀의 고부라진 모습으로 시각화되었다. 그러니 한글의 '상형'이란 한자의 상형과 달라서, 굳이 한글을 상형자라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
> (나) 문자에는 권위가 필요하다. 세종도 이에 따라 한자의 기본 원리인 상형(象形)이나 고전(古篆)의 모방이라는 논리를 부각하였을 것이다. 한자의 상형과 한글의 상형은 자형이 사물의 형상을 본떴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적지 않다.
>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발명자가 굳이 상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 오랜 문자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글이 한자와 제작 원리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한글도 옛 성현들이 만들어 낸 문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자 했던 세종의 논리를 통하여 우리는 한글에 담긴 동아시아의 문자 이데올로기를 읽어낼 수 있다.

① (다) - (나) - (가)
② (나) - (다) - (가)
③ (다) - (가) - (나)
④ (나) - (가) - (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단의 첫 문장, 연결 표현, 지시 대상을 이용하여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나) → (가) → (다)
1. (나): 문자에는 권위가 필요하다는 논제를 제시하고, 세종이 한자의 상형 원리를 모방한다는 논리를 부각하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2. (가): 한자의 상형과 한글의 '상형'이 다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훈민정음을 상형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3.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가)의 결론을 받아 전환한 뒤, 훈민정음 창제자가 '상형'이라는 말을 사용한 까닭을 동아시아 문자 전통과 세종의 논리에서 해석한다.
왜 이 순서인가: (나)의 문제 제기가 (가)의 비교 설명으로 구체화되고, (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가)의 '상형자라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앞에 전제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앞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어야 하며, 첫 문단이 될 수 없다. 틀린 순서 '(다)－(나)－(가)'는 '(나)－(가)－(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나)를 먼저 둔 것은 맞지만, (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받는 내용은 (가)의 '한글을 상형자라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나)－(다)－(가)'가 아니라 '(나)－(가)－(다)'가 되어야 한다.
③ X — (다)는 앞 문단의 결론을 전환하는 문단이므로 맨 앞에 올 수 없다. 또한 (나)의 문제 제기 뒤에 (가)의 한자와 한글 비교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가)－(나)'가 아니라 '(나)－(가)－(다)'가 되어야 한다.
④ O — (나)의 논제 제기, (가)의 구체적 비교와 결론, (다)의 역접적 전환과 의미 확장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오답 포인트

(다)에 세종과 '상형'이 다시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나) 바로 뒤에 놓기 쉽다. 그러나 (다)의 첫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가)의 마지막 판단과 직접 연결되므로, 반복되는 소재보다 연결 표현이 요구하는 선후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먼저 역접·인과 연결 표현이 요구하는 앞 문장을 찾고, 다음으로 지시어와 반복어의 대상을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가)의 결론을 받아야 한다는 점으로 (가)→(다)를 고정한 뒤, 논제를 처음 제시하는 (나)를 맨 앞에 둔다.

암기 포인트

논제 제기 → 구체적 근거와 결론 →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의한 전환의 순서이다.

NoteBase

19. 다음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으로 차례를 들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제사상에 설음식을 두루 갖추어 놓고 차례를 지낸다.

① 정의 ② 예시
③ 분류 ④ 비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쓰인 설명 방법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상을 이해시키는 예시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시는 설명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내용을 이해시키는 방법이다. 정의는 대상의 뜻이나 본질을 밝혀 설명하고,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여러 갈래로 나누며,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한다. 제시문은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이라는 일반적 내용을 '차례'라는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정의'는 대상의 뜻이나 본질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제시문은 '차례란 무엇인가'를 풀이하지 않고 세시 풍속의 구체적인 사례로 차례를 들었으므로, 올바른 표현은 '예시'이다.
② O —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이라는 일반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차례'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으므로 예시가 사용되었다.
③ X —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방법이다. 제시문에는 세시 풍속을 기준에 따라 나눈 내용이 없으므로, 올바른 표현은 '예시'이다.
④ X —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제시문에는 차례와 다른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밝힌 내용이 없으므로, 올바른 표현은 '예시'이다.

오답 포인트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자세히 풀어 썼다는 점만 보고 정의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설명 방법은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내용의 관계로 판단한다. 여기서는 '세시 풍속'이라는 일반적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 사례로 '차례'를 제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반적인 내용을 말한 뒤 ‘예를 들면’으로 바꿔 넣을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나 사례가 이어지면 예시로 판단한다. 뜻을 풀이하면 정의, 기준에 따라 갈래를 나누면 분류,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면 비교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구체적 사례는 예시, 뜻풀이는 정의, 기준에 따른 나눔은 분류, 둘 이상의 견줌은 비교이다.

NoteBase

2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각하라는 단어는 '폐하', '전하', '저하', '합하' 등과 함께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경칭 중 하나였다. 먼저 '황제'에게는 '폐하'라는 경칭이 사용되었다. '폐하'란 '돌계단 아래'라는 뜻이다. 황제를 만나는 사람은 폐하라는 호칭을 통해 자신이 돌계단 아래 있다는 것을 황제에게 알린다. 즉, '폐하'를 통해 "저는 돌계단 아래 있습니다."라고 황제에게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폐하라는 경칭은 화자가 청자를 직접 높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부름으로써 결국은 상대를 부르게 되는 간접적 방법으로 작동하는 경칭이다. '하'자가 들어가는 경칭은 모두 이렇게 자신을 불러 결국은 상대를 부르게 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동하는 경칭들이다.
>
> '전하'라는 경칭은 왕이나 왕후 등에게 사용되었다. 이들이 '전하'라고 불린 이유는 궁궐 내에 '전'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전각들이 바로 이들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즉 왕이나 왕후는 '전 위'에 있고 이 경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하'라는 경칭이 사용된 것이다. '전하' 다음은 '저하'였다. 저하의 '저'는 궁궐 내 전각의 명칭은 아니고 단지 세자가 사는 큰 집을 의미한다. 저하는 조선에서만 사용된 표현으로 세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칭으로 사용되었다.
>
> 다음 위계의 경칭은 '합하'였다. 합하는 왕족 중 서열이 높은 사람이 기거하거나 정승이 집무를 보는 건물인 '합'의 아래라는 뜻이다. 귀족의 경칭 중에서 가장 낮은 위계를 가진 것은 '각하'였다. 각하의 '각' 또한 궁궐의 건물 중 하나로 왕세손이 기거하거나 정2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업무를 볼 때 사용했던 건물이다.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가장 높은 경칭은 합하였고, 각하는 그 다음 위계를 가진 사람에게 쓰는 경칭이었다.

① '폐하'는 '황제'를 간접적으로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② '저하'는 '폐하, 전하' 등과 같이 궁궐의 전각 명칭에서 비롯된 호칭이다.
③ '합하'는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호칭 중 가장 높은 경칭이다.
④ '각하'는 '폐하, 전하, 저하, 합하' 중 가장 위계가 낮은 호칭이다.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조선 시대 경칭인 '폐하·전하·저하·합하·각하'의 유래, 사용 대상, 위계를 본문과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폐하'와 '전하'는 각각 황제와 왕·왕후에게 사용되었고,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간접적으로 부르는 방식의 경칭이다. '저하'의 '저'는 전각 명칭이 아니라 세자가 사는 큰 집을 뜻하며, 조선에서 세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사용되었다. '합하'와 '각하'는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쓰였는데, 합하가 가장 높고 각하가 그다음 위계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 '폐하'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돌계단 아래'에 있다고 낮춤으로써 황제를 간접적으로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② X — '저하'의 '저'는 궁궐의 전각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자가 사는 큰 집을 뜻한다. 올바르게는 '저하는 세자가 사는 큰 집이라는 뜻의 저에서 비롯되어, 조선에서 세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사용된 호칭이다.'이다.

③ O — 본문에서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경칭 가운데 합하가 가장 높고 각하가 그다음이라고 하였으므로, 합하는 비왕족 대상 경칭 중 가장 높은 경칭이다.

④ O — 각하는 귀족의 경칭 가운데 가장 낮고, 비왕족에게 쓰는 경칭에서도 합하 다음 위계이므로 제시된 폐하·전하·저하·합하와 비교할 때 가장 위계가 낮다.

오답 포인트

'전하'가 전각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을 '저하'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함정이다. 본문은 전하의 '전'은 궁궐 전각을 가리키지만, 저하의 '저'는 전각 명칭이 아니라 세자가 사는 큰 집을 뜻한다고 명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경칭을 '말뜻과 유래 — 사용 대상 — 상대적 위계'의 세 기준으로 나누어 본문의 문장과 선지를 대조한다. 비슷한 한자어라고 유래까지 같다고 추론하지 않고, 본문에 제시된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폐하는 황제, 전하는 왕·왕후, 저하는 세자이며, 비왕족 경칭은 합하가 가장 높고 각하가 그다음이다. 전하는 전각에서, 저하는 세자가 사는 큰 집에서 유래한다.

NoteBase

21.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외국인 학습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한국어 발음의 오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는 발음 오류들이다. '오'와 '어'의 구별이 어려워서 '이촌'과 '이천'을 잘못 발음하거나 'ㄱ'과 'ㅋ'의 구별이 어려워서 '그림'과 '크림'을 반대로 발음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
> 그런데 우리가 오류 혹은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 특유의 발음이 느껴지는 것도 있다. 영어의 'C' 발음과 한국어의 '씨' 발음이 그러한 예가 된다. 외국인이 '철수씨'를 '철수 C'라고 발음한다면 듣기에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C'를 '씨'가 아닌 다른 발음으로 들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
> 이렇게 두 가지 오류를 구별하는 것은 발음 교육의 목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발음 교육의 목표를 한국 사람처럼 발음하는 것으로 정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외국인 말투도 교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외국인 말투는 특별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집중하여 발음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발음,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발음을 발음 교육의 목표로 삼게 된다.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의 모어 화자처럼 발음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발음 교육의 목표 또한 재고할 필요가 있다.

①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는 발음 오류를 우선으로 하여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성인이 된 후에는 외국어 학습에서 모어 화자와 같은 발음 능력을 가지기 어렵다.
③ 외국인 특유의 발음도 발음 교육의 목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④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는 관점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다.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의사소통 실패를 일으키는 발음 오류와 외국인 말투로만 느껴지는 발음을 구별하고, 성인 학습자의 현실을 고려한 발음 교육의 목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사소통 실패형 오류: 음운을 잘못 구별하거나 발음하여 말의 뜻을 다르게 전달하는 오류이다.
외국인 말투형 발음: 한국인과 다르게 들리지만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발음이다.
글쓴이는 성인이 모어 화자와 똑같이 발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한국인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발음을 현실적인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두 발음 유형을 구별한 뒤, 성인 학습자의 한계를 고려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요소에 집중하여 발음을 교육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의사소통 실패로 이어지는 발음 오류를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글 전체의 중심이다.

② X — 성인이 된 뒤에는 모어 화자와 같은 발음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는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근거일 뿐, 글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 내용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를 중심 내용처럼 제시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성인의 모어 화자 수준 발음 습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발음 오류를 우선 교육해야 한다'이다.

③ X — '외국인 특유의 발음도 발음 교육의 목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다. 글은 한국 사람처럼 발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할 때에만 외국인 말투도 교육 대상이 된다고 조건을 붙인다. 올바르게는 '모어 화자와 같은 발음을 목표로 할 때에는 외국인 특유의 말투도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이다.

④ X — '목표는 관점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다'는 역사적 변화는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글은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발음 교육의 목표가 달라지며, 성인 학습자의 현실을 고려해 그 목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발음 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관점과 성인 학습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본문에 실제로 나온 문장이어서 중심 내용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③은 '한국 사람처럼 발음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라는 조건을 삭제했고, ④는 '목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를 '계속 바뀌어 왔다'라는 역사적 사실로 바꾸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심 내용 문항에서는 반복되는 핵심 구분과 마지막 결론을 연결한다. 이 글에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가'라는 구분 기준과 '성인 학습자의 현실을 고려한 교육 목표'라는 결론을 함께 담은 선지를 고른다. 일부 근거만 옮긴 선지, 조건을 없앤 선지, 본문에 없는 변화 과정을 덧붙인 선지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뜻이 달라지면 우선 교정하고, 말투만 다르면 교육 목표에 따라 판단한다.

NoteBase

※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가 (㉠)라는 개념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주장하든 간에,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현상이 인간 행위이며, 그것은 여타의 자연적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규정된다. 역사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러한 현상들의 원인이 아무리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에서 인간 의지의 자유가 발휘되는 긴 안목으로 고찰해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 어떤 규칙적인 진행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가) 각 개인에게는 얽혀져 있고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인류 전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근원적인 소질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결혼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비롯되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 등을 들어보자. 이들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들이므로 그러한 사건들의 수량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규칙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나) 큰 국가들의 연간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인간사들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전개되듯이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22.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 행위
② 개인의 계획
③ 의지의 자유
④ 자연의 법칙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 앞뒤 문맥을 연결하여 생략된 핵심 개념을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의지의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지문은 '인간 의지의 자유가 발휘되는 긴 안목'이라고 ㉠을 다시 풀어 쓰고 있으므로, ㉠에는 '의지의 자유'가 들어간다. 인간 행위는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현상이고, 자연의 법칙은 그 행위를 규정하는 법칙이므로 ㉠ 자체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인간 행위'는 ㉠이 아니라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현상이다. 올바르게는 '인간 행위는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X — '개인의 계획'은 지문에서 ㉠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에 '의지의 자유'가 들어가야 한다.
③ O — 뒤의 '인간 의지의 자유가 발휘되는 긴 안목'이 ㉠을 직접 뒷받침하므로 '의지의 자유'가 가장 적절하다.
④ X — '자연의 법칙'은 인간 행위를 포함한 자연적 사실을 규정하는 법칙이지 ㉠의 명칭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에 '의지의 자유'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포인트

㉠ 바로 뒤에 '인간 행위'와 '자연의 법칙'이 나오므로 ①이나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둘은 각각 의지가 드러난 결과와 그 결과를 규정하는 법칙이며, ㉠은 형이상학적으로 논의되는 '의지의 자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주변의 반복·재진술 표현을 먼저 찾는다. 이 지문에서는 앞부분의 ㉠을 뒷부분의 '인간 의지의 자유'가 다시 밝혀 주므로 두 표현을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의지의 자유는 원인, 인간 행위는 외부로 드러난 현상, 자연의 법칙은 그 현상을 규정하는 법칙이다.

NoteBase

※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가 (㉠)라는 개념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주장하든 간에,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현상이 인간 행위이며, 그것은 여타의 자연적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규정된다. 역사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러한 현상들의 원인이 아무리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에서 인간 의지의 자유가 발휘되는 긴 안목으로 고찰해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 어떤 규칙적인 진행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가) 각 개인에게는 얽혀져 있고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인류 전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근원적인 소질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결혼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비롯되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 등을 들어보자. 이들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들이므로 그러한 사건들의 수량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규칙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나) 큰 국가들의 연간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인간사들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전개되듯이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23. (가), (나)에 해당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런데, 그래서
② 그런데, 그렇지만
③ 그리고, 그래서
④ 그리고, 그렇지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가)와 (나)의 앞뒤 문장이 이어지는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첨가·전환·인과의 접속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그리고’는 앞의 내용에 관련 내용을 덧붙이거나 이어 갈 때 쓰고, ‘그렇지만’과 ‘그런데’는 앞의 내용과 대조되거나 방향이 달라지는 내용을 이을 때 쓴다.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의 내용이 그 결과일 때 쓴다.
(가)의 뒤에서는 역사에 규칙적 진행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 뒤, 개인에게 불규칙해 보이는 현상도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는 소질의 지속적 발전으로 볼 수 있다고 대조한다. (나)의 앞에서는 탄생과 죽음이 규칙에 종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통계상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므로 대조 관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첫째 자리에는 앞의 설명을 이어 덧붙이는 ‘그리고’가 필요하므로 ‘그런데’가 맞지 않는다. 또한 (나)는 ‘규칙에 종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임’과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남’이 대조되므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서’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그리고, 그렇지만’이다.
② X — (나)의 ‘그렇지만’은 대조 관계에 맞지만, (가)의 첫째 자리에서 ‘그런데’는 앞뒤 내용을 불필요하게 전환한다. 올바르게는 첫째 말을 ‘그리고’로 고쳐 ‘그리고, 그렇지만’으로 써야 한다.
③ X — (가)의 첫째 말인 ‘그리고’는 적절하지만, (나)는 인과 관계가 아니므로 ‘그래서’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둘째 말을 ‘그렇지만’으로 고쳐 ‘그리고, 그렇지만’으로 써야 한다.
④ O — (가)의 첫째 자리에는 역사에서 규칙적 진행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이어 주는 ‘그리고’가 알맞고, (나)의 둘째 자리에는 겉보기의 불규칙성과 통계에서 드러나는 법칙성을 대조하는 ‘그렇지만’이 알맞다.

오답 포인트

(가) 안에 ‘아무리 … 하더라도’라는 양보 표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첫째 자리에 대조 접속어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접속어는 빈칸 바로 앞뒤의 문장 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나)의 뒤 문장이 앞 문장을 반박한다고 해서 이를 앞 내용의 결과로 보고 ‘그래서’를 고르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 문장을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한 뒤, 뒤 문장이 앞 문장을 덧붙이는지, 반대로 뒤집는지, 원인에 따른 결과인지 판단한다. 첨가이면 ‘그리고’, 대조이면 ‘그렇지만·그런데’, 인과이면 ‘그래서’를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그리고는 첨가, 그렇지만·그런데는 대조, 그래서는 결과이다.

NoteBase

2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확산이란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멸치 육수를 예로 든다면, 멸치 안에 모여있던 물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농도가 옅어지고 희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들이 한곳에 모여있지 않고 넓게 퍼지려는 경향을 과학자들은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란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학 용어인데요, 모여있지 않고 흩어질수록 무질서도는 증대됩니다.
>
> 이러한 확산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는 열입니다. 물질이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조리할 때 가해지는 열이 이러한 에너지의 공급원이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확산되는 물질의 크기인데, 아무래도 그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이 수월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확산되어 들어가는 매질의 상태입니다. 육수의 경우는 보통 그 매질이 물이기 때문에, 물질이 확산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갈비찜처럼 유용한 맛성분들을 농도가 높은 육수에서 고기 안쪽으로 확산시켜야 할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① 액체일 때보다는 기체일 때 엔트로피가 증대되겠군.
② 멸치 육수 내는 것보다 사골 육수 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매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군.
③ 미지근한 물보다는 팔팔 끓는 물에서 우려내야 원하는 성분을 제대로 얻을 수 있겠군.
④ 저분자인 이노신산이 고분자인 지방보다 빨리 확산 되겠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확산에 영향을 주는 열, 확산 물질의 크기, 매질의 상태를 구체적인 조리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확산은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넓게 퍼지는 현상이다.
열: 공급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물질의 이동이 활발해져 확산이 잘 일어난다.
확산 물질의 크기: 물질의 크기가 작을수록 확산이 수월하다.
매질의 상태: 물질이 퍼져 들어가는 매질이 기체처럼 자유로울수록 확산이 쉽고, 지문에서는 육수의 매질인 물이 확산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체는 액체보다 입자들이 덜 모여 있어 무질서도가 크므로, 지문의 엔트로피 설명에 따르면 액체일 때보다 기체일 때 엔트로피가 더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X — 틀린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매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표현이다. 멸치 육수와 사골 육수는 모두 물을 매질로 하므로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두 육수의 시간 차이를 지문에 제시된 매질의 상태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이다.
③ O — 팔팔 끓는 물은 미지근한 물보다 더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하므로 확산이 활발해져 원하는 성분을 더 잘 얻을 수 있다.
④ O — 이노신산은 지방보다 분자량이 작아 확산 물질의 크기가 더 작으므로, 지문의 원리에 따르면 고분자인 지방보다 빠르게 확산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재료가 다르다'를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로 바꾸어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확산되는 물질이나 재료가 달라도 두 육수에서 물질이 퍼져 들어가는 매질은 모두 액체인 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상황을 열의 많고 적음, 확산 물질의 크고 작음, 매질의 기체·액체·고체 상태 중 어느 요인에 대응하는지 나누어 본다. 재료의 종류와 매질의 상태는 별개의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열은 많을수록, 확산 물질은 작을수록 확산이 쉽다. 재료가 달라도 매질이 모두 물이면 매질의 상태는 같다.

NoteBase

25.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금융 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해당 예금자의 가계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국가 금융 제도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험 제도'를 실행한다. 이는 예금 보험 공사가 평소에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 1997년 외환 위기로 여러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정부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금자 1인당 2천만 원이던 종전의 보장 한도를 높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원래 예금자 보호 제도가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되 부실 금융 기관을 선택한 예금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예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것이다.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부터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보장 한도를 올렸는데 이후 저축 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축 은행의 보장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보장 한도가 높으면 금융 기관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만 의존해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려 부실하게 운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① 예금자 보험 제도란 금융회사가 여러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② 예금자 보험 제도의 보장 한도가 높으면 금융기관이 이에 너무 의존해서 부실하게 예금을 운용할 수도 있다.

③ 예금자 보험 제도는 외환 위기 이후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해 준 적이 있다.

④ 예금자 보험 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예금 보험금은 예금자가 예금한 금융회사가 지급한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설명된 예금자 보험 제도의 목적, 보장 한도 변화, 보험금 지급 주체를 선지와 정확히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금자 보험 제도는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일정 한도 안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금융 기관은 평소 보험료를 내고, 예금 보험 공사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보험금 지급에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제시문은 금융 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의 한도 안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② O — 제시문 마지막 부분에서 보장 한도가 높으면 금융 기관이 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예금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부실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③ O — 1997년 외환 위기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원금 전액을 보장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예금자가 예금한 금융회사가 지급한다'이다. 금융 회사는 평소 보험료를 내며, 금융 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적립한 기금으로 일정 한도 내의 예금 보험금을 지급한다.

오답 포인트

예금을 맡긴 곳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을 혼동하기 쉽다. 예금은 금융 회사에 맡기지만, 해당 금융 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예금 보험 공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도의 설명문은 '보험료 납부 주체·기금 적립 주체·보험금 지급 주체'를 나누어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금융 기관이 보험료를 내고 예금 보험 공사가 기금을 적립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기 포인트

금융 기관은 보험료 납부, 예금 보험 공사는 기금 적립과 보험금 지급이다.

NoteBase